

마음에 빛 쬐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삶으로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이달 5일부터 아카이브전 '인사이트 라운드' 주제로 예술 생태계 변화 사례들



'성평등 문화티움 31'에 참여한 이연숙의 '두 여자'. 고단한 삶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엄마와 그 삶을 담지 않으려는 딸의 모습 등을 표현하고 있다.

제주 등 전국 예술인들이 불평등을 드러내고 차별 없는 삶을 꿈꾸며 걸은 2020년의 여정이 한자리에 모인다. 상상창고 슴(대표 박진희)이 펼치는 '문화예술×성평등 네트워크 인 제주' 프로젝트 아카이브전을 통해서다.

이 프로젝트는 2017년부터 여성 미술제 '살림하는 붓질'을 이어온 상상창고 슴이 그간의 성평등 문화 확산 예술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꾸민 예술인 커뮤니티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2020ACE(Art Culture Equality) 추진위원회가 주관했다. 추진위원회는 "내가 너를, 내가 나를, 우리가 우리를 다양성으로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평등할 권리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며 "우리는 안녕하십니까?"라

는 슬로건 아래 코로나 시국 속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업을 벌였다. 첫 프로젝트로 인식 확산 캠페인 '성평등 문화씨앗을 배달합니다'가 진행됐다. SNS를 통해 문화예술인 100인에게 선착순으로 패키지를 제공하고 성평등 문화 씨앗을 심어 키워내며 성평등 디딤돌, 걸림돌 목소리를 담아내고 그 과정을 공유했다. 예술인들의 협력 프로젝트 '성평등

문화티움 31'도 이어졌다. 31인(팀)의 예술인들이 각자의 시선으로 성평등 메시지를 실은 1분 영상작품을 제작해 11월 한 달 동안 매일 한 작품씩 유튜브 채널로 선보였다. 지난 달 20일엔 문화예술 성평등 포럼이 열렸다. 아카이브 전시는 올해 마지막 일정이다. '인사이트 라운드(Insight Round)'란 이름을 달고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제주시 원도심에 있는 문화공간 포지션민제주(관덕로6길 17 2층)에서 열린다.

인사이트는 우리 안의 인식의 변화에 불이 쬐지는 순간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보이던 것이 달리 보인다는 의미다. 거기가 우리 안에 새로운 빛이 생기면 그 크기만큼 세상이 보이고 연대가 이뤄진다는 공간적 의미의 라운드를 덧붙였다.

이번 전시엔 특히 남성 중심의 문화예술 생태계 속에서 수많은 인사이트 라운드를 만들고 있는 사례를 지역별로 하나의 책상에 모아놓을 예정이다. 방문객들은 그 책상에 앉아 각자 자신의 인사이트를 밝히는 관람자이자 체험자로서 전시를 만나게 된다.

전시 연출을 맡은 연미 작가는 "수직도 수평도 없는 우주의 공간에서 각자의 빛을 내는 별처럼 지역의 아카이브 존이 있다"며 "그 별을 찾아 새로운 인사이트를 쬐길 바란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2020aceinjeju.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선회기자 sunny@ihalla.com

제주섬에서 생을 마친 인간 광해

극단 공옥사 '멍' 제주 초연 기억을 잃은 유배인 광해 김광림 극본·류태호 주연



류태호·황석정 주연의 연극 '멍'.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아우를 죽이는 등 유교 윤리를 훼손시킨 군주로 지목돼 왕위에서 쫓겨난 광해군. 그는 강화도를 시작으로 15년간 몇 차례 적소를 옮겨 다닌다. 그러다 1637년 제주에 유배됐고 1641년 이 섬에서 병사한다.

드라마 '미생'의 배우로 낮익은 류태호가 제주에 등지를 틀고 지난해 창단한 극단 공옥사가 제주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낸 광해군의 삶에 상상력을 입혀 무대 위로 불러낸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우수기획공연에 선정된 작품으로 이달 4일 오후 7시, 5일 오후 4시 한라아트홀 대극장에서 초연하는 '멍'이다.

이 작품은 영화 '살인의 추억'의 원작이 된 '날 보러 와요'를 집필한 유명 극작가 김광림이 극본을 썼다. 가족까지 모두 잃은 채 명한 상태로 살아가는 유배인 광해가 기억을 되찾으며 느끼는 혼란과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통해 인생과 권력의 무상함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극단 측은 "왕이 아닌 인간 광해에 초점을 맞춰 존재에 대한 성찰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신동인 연출로 류태호가 광해 역을 맡고 예능과 드라마를 넘나들고 있는 황석정이 광해의 삶을 높이로 만들어 광해의 기억을 되찾아주려는 나인 애영으로 분한다. 김기남, 박경진, 이정주, 백진욱, 이유근, 박신혜 등은 제주 광대 역으로 무대에 오른다. 전미리(분장), 강경호(기술감독), 고동욱(영상), 이인호(디자이너), 이주민(조명), 고종현(음향) 등 스태프도 제주 출신을 주축으로 꾸렸다. 제주어 감수(김선화)도 이뤄졌다.

연극 '멍'은 제주 공연이 끝나면 서울 대학로로 향한다. 이달 10일부터 13일까지 방송통신대학 열린관 소극장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예매문의 010-8827-1002. 전선회기자

지역 예술인과 동행 행복 나눔 여행

도문화진흥원 기획 공연 3일과 5일 잇따라 개최

문화예술인과 동행하는 기획 공연이 잇따른다. 제주시도문화예술진흥원(원장 부재호)은 이달 3일 오후 7시30분 '행복 나눔 콘서트', 5일 오후 5시 '문화예술 여행'을 이어간다. '행복 나눔 콘서트'는 제주 출신

강지혜(바이올린), 윤소희(비올라), 박소현(첼로), 백진호(피아노), 유소영(소프라노)과 제주브라스퀸텟, 글빛시니어여성합창단이 출연한다. 바흐의 '첼로 무반주 모음곡', 생상스의 '하바네라', 피아졸라의 '그랜드 탱고',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문화예술 여행' 역시 제주에서 할

동하는 무용, 성악, 기악 연주자들이 참여해 무대를 꾸민다. 출연진은 골든브라스, 제주도화, 컴퍼니 랑, 테너 김신규, 한일메아리 예술원, 흥조밴드, 광개토제주예술단으로 짜여졌다. 공연 장소는 문예회관 대극장이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객석 일부만 개방한다. 관람료 무료. 문의 710-7643. 전선회기자

'기메'에 당신의 바람을 담으세요

'웹컴투 기메월드...' 기획 온라인 공연·전시 진행

두걸음 교육연구소, 레트로 한복 디자인을 하는 이향, 그래픽아티스트 박고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 무속의례의 기메처럼 제주 곳곳에서 종이로 사람 모양을 비스킷이 오려 댕가지에 기처럼 매다는 기메, 제주 전통 종이예술로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바람의 깃발로 불린다.

이들은 제주 무속의례의 기메처럼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 기메에 담겨 훨훨 날아오르길 바라며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제주기메' 예술인들은 음악, 춤, 패션 디자인 등으로 제주의 바람을 그리며 360 VR 공연 '바람의 노래'를 만들어 온라인에서 선보인다.

프로젝트그룹 '제주기메'가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기메에서 영감을 받은 공연과 시민 참여 작품을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행사를 펼친다. '웹컴투 기메월드-제주의 바람을 당신에게'란 이름의 프로젝트다.

어린이와 성인들이 기메를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도 있다. 지난 1일부터 '제주기메' (http://gime.creatorlink.net) 홈페이지로 선착순 100명(8세 이상)을 접수받고 있는데, 신청자에게 기메 만들기 체험 키트를 제공한다. 프로젝트 결과물은 12월 하순부터 한달간 '제주기메' 홈페이지로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 787-7898. 전선회기자

문화가 쫓겨

원도심 명소 담은 소책자

제주시도문화예술진흥원(센터장 부성현)이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으로 조성된 재생공간 등을 담은 소책자 '지금, 여기 제주 원도심'을 펴냈다.

이 책자엔 문화공간, 카페, 문화재단 등 원도심에 흩어진 29곳에 얽힌 이야기가 실렸다. 삼도2동,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 일부 등 원도심 일대를 산책하듯 걸으며 돌아보도록 휴대하기 편하게 제작됐다. 부록으로 원형이 남아있는 원도심 옛길 9곳도 소개했다. 문의 726-0694.

돌하르방미술관 작품전

북촌 돌하르방미술관(관장 김남흥)은 이달 6일 골다락 토요문화학교로 운영한 '와자지겔 자파리 가족의 꽃자왈 미술관' 작품 활동 전시회와 겨울 캠프를 연다.

이 전시엔 장에·비장애 23가족 67명이 '나와 가족'을 주제로 제작한 그림, 판화, 탈, 클레이, 사진 등을 볼 수 있다. 이날 '미술관에 눈이 내리면'이라는 주제로 겨울 캠프도 진행한다. 골다락 토요문화학교 졸업식을 겸한 자리로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 등이 예정됐다.

타이니 재즈 페스티벌

제주 재즈 콜렉티브(JJ Jazz Collective)가 주최하고 드러머 유성재가 기획한 제2회 타이니 재즈 페스티벌이 이달 6-7일 열린다.

코로나 여파로 유튜브 채널 등으로 진행될 이번 축제엔 제주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김수하트리오, 김세운 재즈 챔버, 제주 재즈 콜렉티브, 시크릿코드, 박상훈 프로젝트, 김성은 트리오가 등 6개팀이 참여한다. 이 축제는 도내 재즈뮤지션들에게 정기적 연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됐다.

ODA 온라인 사진 전시

제주대 국제개발협력센터는 12월 5일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12월 한달 동안 국제개발협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2회 국제개발협력 ODA(공적개발원조) 온라인 사진전을 연다.

이번 사진전의 주제는 '국제개발협력과 해외봉사'로 정해졌다. 과거 한국이 원조를 받던 시절의 사진부터 한국해외봉사단이 외국에서 활동하는 모습 등 총 28점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전 기간에는 소감글을 남기는 이벤트도 진행해 기념품을 준다.

제주노비타 제주총판 비데렌탈

novita 노비타 제주점 (구,제민일보 맞은편)

신광로터리, 빽스, 제주제일요양병원, 신제주로터리, 마린나사거리, 마리나호텔, 공항

BD-AFE50N

3년 약정

무상 A/S

- 4개월 점검 및 스팀청소, 비데필터교환
- 래변, 순간온수방식, 어린이기능

월 16,900원

BD-N530A

3년 약정

무상 A/S

- 4개월 점검 및 스팀청소, 비데필터교환
- 공기방울리듬세정, 접이식조작부

월 19,900원

BD-N443(리모컨)

3년 약정

무상 A/S

- 4개월 점검 및 스팀청소, 비데필터교환
- 리모컨형, 탈취, 공기방울세정

월 24,900원

문의 | 제주노비타 제주총판 064)758-0991 제주시 연삼로17(연동)